

르포 / '전봇대' 그 후 1년... 지금 대불산단은

“선박 블록 주문 끊겨... 조선소 퇴출땐 줄폐업 공포”

대한민국의 대표적 조선산업 연관산업인 대불산단지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남의 미래'를 쥐고 있는 '희망의 땅'으로 불렸다.

대불산단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전봇대 발안'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8일 대표적 탁상행정 사례로 화물운송에 지장을 주는 대불산단 전봇대를 지목했고, 이후 대대적인 공간 리모델링이 시작되면서 또 한번 희망이 넘쳐났다.

하지만, 1년이 흐른 지금 대불산단은 전 세계적 불황 여파로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다. 특히 중소 조선소의 퇴출이 예고되면서 입주 업체들은 물론 인근 식당가마저도 침울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불황 속 깊어가는 한숨=15일 오전에 찾은 영암 대불산단 일대는 영하권의 한파와 맞물려 쌀쌀한 냉기가 감돌았다. 공장 앞에서 만난 조선업체 종사자들에게 요즘 상황을 묻자, 한숨만 되돌아왔다.

선박 블록 제조업체인 A사 근로자 이모씨는 “지난해 가을만 해도 월 600(수주단가 t당 80만~140만원)의 물량을 수주했으나, 요즘은 만들 블록이 없다”면서 “곧 큰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는데 월급마저 끊겨 정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블록 업체인 B사 사장은 “물량은 좋고, 각종 자재값은 전년보다 30%나 올랐지만 수주 단가는 그대로”라면서 “이마저도 안 하면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일거리 감소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여파로 선박 수주 계약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불산단 입주 업체 200곳 중 일부 회사가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 들어 2곳은 부도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퇴출 불안이 더 죽을 맛=하지만, 대불산단 업체 사장들은 불황보다도 더 힘든 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조간간 발표할 부실 중소조선소의 퇴출 소식 때문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2008년 한 해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을 비롯한 총 57개 조선소가 5조 3천억원의 매출을 기록, 전국의 12.6%를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 조선단지를 이루고 있다.

2003년부터 대형 선박 블록을 제작중인



조선산업 관련 업체가 몰려있는 영암 대불산단이 미국발(發)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15일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단 관계자들은 경기 불황에 따른 수주 실적 저하와 함께 정부의 부실 조선소 퇴출 방침으로 더욱 분위기가 가라앉았다고 입을 모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희망의 땅’ 1년만에 ‘바람앞의 등불’로 업체 50% 이상 조선산업 연관 ‘불안’ 인근 상권도 타격 “그 많던 손님 어디에...”

유인숙 (주)유일 대표는 “대불산단내 업체 중 50% 이상이 중소 조선소와 연계돼 있다”면서 “퇴출이 현실화될 경우 연관 업체 대부분은 부도의 위기로 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박 구성품 업체인 (유)삼육중합강관을 운영하는 김은수 대표도 “중소조선소의 퇴출 소식이 들리면서 대부분의 업체가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침체한 전남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선소의 퇴출을 최소화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박준영 전남도지사로 최근 성

명서를 통해 “현재 구조조정 기준에 따르면 전남도내 신생 조선사 대부분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 업체들이 3~4년치 일감을 확보하는 등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최적의 투자처인 만큼 구조조정은 철저하고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역경제도 심각한 타격=지난해 10월부터 본격화된 조선업체의 침체로 지역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대불산단 업체 직원들이 거주하는 영암군 삼호읍에서 3년째 고깃집 운영중인 김

모씨는 폐업마저 고려 중이다.

지난 2007년 80평 규모의 쇠고기·돼지고기 전문 식당을 차린 박씨는 “지난해 11월 이후 손님이 톱 끊겼다”면서 “하루 100만원 이상 오르면 매출이 10만원대로 떨어졌다”고 고소연했다.

지난해 연말 특수도 전혀 누리지 못했다. 김씨는 “그 많던 손님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면서 “종업원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등 원가절감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있지만, 적자만 늘어날 뿐”이라고 말했다.

목포 등 인근 도시들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많은 유흥가가 들어선 목포 하당 신도시에선 조선업체 특수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한 유흥업소 업주는 “조선업체가 잘 나가던 시절엔 굵직굵직한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는데, 이전 뜨내기 손님만 찾는 뿐”이라면서 “조선업체가 어렵다보니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조선업 잠재력 크다”

한은 전망 “2010년 조선경기 회복될 것”

한국은행은 국내 조선경기가 2010년이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지역 조선업체들은 신용경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수주물량이 충분히 지금 슬럼프 트인다면 충분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선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커져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따른다면 지역 전략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경기 2010년이면 회복=한은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있지만 조선업은 상대적으로 크게 위

2003~2007년에도 조선업은 연 평균 24.6%라는 고성장을 거듭해 지역내 제조업 성장률(13.9%)을 크게 앞질렀다. 조선업 취업자수도 2004년 1만5천여명에서 지난해 2만5천여명으로 4년새 66.6%나 급증했다. 인구증가에도 기여해 지난 4년사이 전남 인구는 3.7%가 감소했지만 조선업이 집중된 전남 서남해안 지역인 목포·무안의 인구는 2%가 증가했다.

◇성장 잠재력 충분=한은이 선별적인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역 조선업체의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업에서 중소 조선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역 조선소 3~4년 수주물량 확보 지역경제 비중·고용 인력도 급신장 정부 전략산업 육성 정책적 지원을

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선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경기변동과의 상관성이 낮아 최근 경기침체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국내 조선업체는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갖춘만큼 중국 등 신흥 개도국 업체들이 1~2년 내에 구조조정되면 오히려 과실을 더 챙길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조선업체들도 향후 3~4년간 수주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일시적인 발주량 감소나 선가하락에 대응할 여지가 충분하다.

◇지역경제 비중 갈수록 커져=조선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지역내총생산(GRDP) 기준으로 6.9%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은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워낙 성장률이 높아 비중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전남이 선별적인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역 조선업체의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업에서 중소 조선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남지역 신생 중소 조선업체의 급성장 등으로 국내 중소형 조선사의 수주잔량 비중은 2003년 3.8%에

서 2008년 9월 25.3%로 급증했다.

한은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따른다면 이같은 중소 조선업체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적인 사례로 대불산단의 인프라 미비를 들었다. 대불산단이 당초 운송장비와 급속조립 업종 위주로 조성되다보니 아직은 조선업체를 후방에서 지원할 기반이 취약하지만 도로 개보수와 산업단지 추가조성 등 배후시설을 지원하면 조선업이 지역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남도 등이 나서 2012년까지 6천320여명의 조선인력을 양성할 계획인데 기술인력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영광클비 **설날맞이** 직송판매

고마운분들께 마음을 담아 선물하세요!

謹賀新年

전주시민 전향에서
지역 행복을 위해서라도
택배비 무료

문의 전화: 351-0094

팩스: 351-0094

주최: 흥성수신

351-0094